

# “김현수표 타격폼 완전히 다 바꾼다”



‘타격기계’ 김현수(두산)가 내년 시즌 비상을 꿈꾸며 올 겨울 힘차게 뛰다. 타격폼 수정은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 스포츠동아DB

오른쪽 다리 들고 몸 비틀어 치는 타격폼 상대 투수들과 승부서 쉽게 타이밍 뺏겨 3할 복귀 불구 PS때 슬럼프 원인 되기도 미래 위해 간결한 타격폼 전면 수정키로

두산 간판타자 김현수(26)는 ‘타격기계’로 불릴 만큼 천부적 타격감각을 자랑한다. 지난 해에는 타율 0.291에 머무르면서 5년 연속 3할 타율 행진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올 시즌에는 타율 0.302로 3할 타율에 복귀했다. 여기에 16홈런, 90타점을 기록하며 중심타자다운 역할을 해냈다. 그러나 그는 변화를 택했다. 김현수는 비시즌 동안 대대적인 타격폼 수정을 통해 내년 시즌 새롭게 거듭날 계획이다.

## ●슬럼프가 가져온 변화

김현수는 타격 시 오른 다리를 들고 몸을 비틀어 타이밍을 맞추는 독특한 타격폼을 지녔다. 프로 데뷔 초에는 투수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시즌을 거듭할수록 상황은 반대가 됐다. 김현수를 상대하는 투수들이 그의 타격 타이밍을 빼앗는 데 익숙해진 것이다. 김현수는 7일 “지난해 슬럼프도 상대 투수들의 타이밍 뺏기에 대처하지 못한 것이 크다”고 밝혔다. 올 시즌 3할 타율 복귀에는 성공했지만, 타이밍 싸움에선 지난해처럼 어려움을 겪었

다. 게다가 독특한 타격폼의 특성상 한 번 밸런스를 잃으면 이를 되찾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9월부터 시작된 슬럼프가 포스트시즌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 ●미래를 위한 결정

코치들과의 상의 끝에 김현수는 타격폼 수정을 결심했다. 상체를 비틀어 치는 현재의 타격폼에서 벗어나 간결한 타격폼으로 변화를 줄 계획이다. 국가대표급 기량을 자랑하는 그에게 타격폼 변경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에 대해 김현수는 “미래를 위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김현수는 “지금의 타격폼으로도 3할은 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폼으로는 맞히기에 급급한 타격밖에 할 수 없다. 영영 상대 투수의 타이밍 뺏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변신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수는 삼성 채태인을 예로 들었다. 그는 “(채)태인(31)이 형도 예전에는 다리를 많이 드는 타격폼이었지만, 지금은 심플한 폼이 됐다. 많은 연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타격폼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다음 주 훈련 시작과 함께 조금씩 타격폼을 바꿔나가려고 한다. 길게는 시범경기나 내년 시즌 초까지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싹 바뀔 것”이라면서 변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 송승준이 장원준 제대를 반기는 까닭

롯데 송승준(33)은 경찰청에서 복무하던 좌완 선발요원 장원준(28)의 복귀를 그 누구보다 반기고 있다. 지금은 다소 색깔이 없어졌지만, 둘은 롯데의 양대 계파인 경남고(송승준)와 부산고(장원준)를 대표하는 간판투수들이다. 롯데 에이스가 ‘경남고, 부산고 중 어디 출신인가’는 그간 미묘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장원준이 2011시즌을 끝으로 경찰청에 입대 한 2년 사이, 롯데의 토종 에이스는 단연 송승준이었다. 장원준의 복귀로 다시 라이벌이 생긴 셈이지만, 송승준은 오히려 반색하고 있다. 단지 롯데 선발진이 강해지는 것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느끼는 ‘장원준 효과’를 알기 때문이다.



송승준

장원준

송승준은 “원준이가 이기면 나도 이길 때가 많았다”고 밝혔다. 실제 장원준이 2008~2011년 4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포함해

롯데 승리 부르는 선의의 라이벌 가을야구 재입성 원원 효과 기대

52승을 거둘 때, 송승준도 똑같이 4년 연속 10승 이상에 총 52승을 거뒀다.

장원준이 없었던 2012년 송승준은 3.31의 방어율을 기록하고도 승수는 7승(11패)으로 줄었다. 올 시즌에도 전반기 4승밖에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후반기에 페이스를 끌어올려 12승6패, 방어율 3.76으로 시즌을 마쳤다. 송승준은 “성적도 성적이지만 기록이 줄어든 피치를 해냈다는 점에서 나 자신에게 확신을 얻었다”고 자평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롯데가 6년 만에 가을야구를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러모로 장원준의 복귀가 반갑다. 장원준과의 선의의 경쟁이 롯데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란 믿음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121

## 박병호-이지운 부부 남태평양 힐링여행

넥센 박병호(27)는 요즘 집 근처의 체육관에서 열심히 개인훈련을 하고 있다. 시즌이 끝난 뒤 달콤한 휴식을 취해야 할 시기지만, 준플레이오프(준PO)가 끝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개인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곧 ‘100점짜리 아내’ 이지운(31) 씨와 함께 남태평양의 한 섬으로 여행을 떠나기 때문이다.

넥센은 지난달 14일 준PO 5차전을 마지막으로 아쉽게 시즌을 마감했다. 그 후 박병호 부부가 여행을 떠날 만한 시간도 충분했다. 그러나 이제야 비행기에 오르는 이유가 있다. 박병호는 “혹시 몰라서 한국시리즈(KS)가 다 끝난 이후로 여행 날짜를 예약해뒀었다”고 귀띔했다. 포



넥센 박병호(오른쪽)의 성공 뒤에는 아내 이지운 씨의 내조가 있었다. 박병호는 조만간 아내와 함께 남태평양의 한 섬으로 여행을 떠나 재충전을 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DB

스트시즌에서 넥센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지 몰랐던 터라,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것이다.

KS행 대비 시리즈 이후로 미뤄던 여행 낭만의 섬으로 떠나 100점 남편 외조?

그만큼 KS에 나가고 싶은 열망이 컸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병호는 “이미 선금까지 다 내놨기 때문에 일정을 바꾸기도 어려웠다”며 “아내와 편안하게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PO가 끝난 뒤 부랴부랴 운동 장소를 섭외해 개인훈련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박병호 부부는 25일 귀국한다. 박병호는 이후 목동구장에 나가 다음 시즌에 대비한 개인훈련을 재개할 계획이다. 그는 “시즌을 너무 허무하게 마감해서 아쉬운 마음이 컸다. 내년 시즌에는 더 높은 곳을 보고 달리겠다”고 다짐했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편집 | 안도영 기자 ydalove@donga.com 트위터 @sd\_do02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강릉 초당두부, 남원 추어탕,  
대구 안지랑곰장어까지...

우리 나라에는 맛있는  
보물이 참 많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  
그 맛보러 떠나 보세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맛있는 여행을 떠나세요

만화가 허영만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강릉 선교정』

## 대한민국 구석구석 맛있는 여행

2013. 10.15~12.15 food.visitkorea.or.kr

홈페이지에서 유익한 여행정보도 얻고요, 푸짐한 경품이 있는 이벤트도 참여하세요!

| 음식테마거리                                | 추천여행상품·코스                              | 먹거리추천 이벤트                          | 별미여행 참가자 모집                          |
|---------------------------------------|----------------------------------------|------------------------------------|--------------------------------------|
| 5대 대표 음식테마거리와 전국 200여개 테마거리의 알짜정보가 가득 | 전국 각지의 별미음식을 찾아 떠나는 맛있는 여행 상품과 여행코스 소개 | 나의 국내 여행 중 만났던 맛있는 먹거리와 숨은 맛집 추천하기 | 우리 나라 구석구석으로 맛과 멋을 찾아 떠나는 별미여행 참가 신청 |

관광안내전화: 국번없이 1330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합가기관 :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장경제진흥원, 한국아름다움협회, 지리산관광개발조합,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립국어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